

*Indian Mythology – Tales, Symbols, and  
Rituals from the Heart of the  
Subcontinent*에 대한 서평

류 경 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 1. 신화학과 인도신화 연구

‘신화’(Myth)는 인류가 세계를 원초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들, 인류가 펼친 상상력의 풍부한 이미지들 그리고 근원적 실존상황에 대응해 온 다양한 방식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신화는 인간의 근원적 열망과 물음들을 다뤄왔다. 이 점에서 신화는 시공을 초월하여 어떤 보편적 구조와 인식체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신화는 특정 집단의 산물로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와서 문화에 따라 독특한 세계관과 정체성, 공동체적 이념과 윤리적 가치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점에서 신화는 인류 보편의 문제와 함께 특정 문화와 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화를 연구하는 학문분과가 신화학(Mythology)이다. 신화학과

관련하여 인도(힌두)신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기 인도학 연구를 통해 19세기 유럽학자들에게 제공된 인도 신화텍스트와 언어 관련 자료들은 비교신화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후 인도신화는 신화연구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다. 인도신화는 그 주제와 스케일 그리고 상상력의 범위가 거대하고 풍부한 신화와 전설들이 구전과 문헌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전승되어 왔다. 『베다』(우파니샤드 포함),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뿌라나』 외 다수의 방대한 신화텍스트들이 그 결과물들이다. 필자가 가끔씩 인도신화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는 건 엄청난 다양성을 지니면서도 어떤 통일성이 존재하고 3,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거쳐 오면서도 그 생명력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이다. 인도신화는 살아있는 신화로 인도인들의 의식과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도신화는 인도인들의 사유방식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신화일반을 이해하고 살아 있는 신화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인도신화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도(힌두)신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학계의 경우는 많은 저서들이 나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도신화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다룬 저서는 극히 일부이다. 서구학자들의 저술은 대부분 인도 신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약간의 서두해설을 붙여 관련 신화들을 담고 있다. 다음의 저서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오프레허티(O'Flaherty)의 *Hindu Myth*(1975)는 주요 힌두 신과 여신들 그리고 데바(신)와 아수라(악마)로 주제를 분류하여 관련신화들을 번역 편집해 놓고 있고 윌킨스(Wilkins)의 *Hindu Mythology*(1882)는 힌두 신들을 『베다』와 『뿌라나』 문헌의 신들 그리고 하위신격들로 분류하여 각 신들에 대한 소개와 신화스토리를 연계해 서술하고 있다. 디미트(Dimmitt)와 반 브이튼엔(van

Buitenen)이 번역 편집한 *Classical Hindu Mythology*(1978)도 『뿌라나』 문헌을 토대로, 항목을 우주론, 주요 신들, 성자, 왕, 초자연적 존재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간단한 서두설명을 넣어 관련신화자료를 담고 있고 라디스(W. Radice)의 *Myth & Legends of India* (2001) 역시 서문 설명만을 붙인 신화 모음집이다. 따라서 이들 저서들은 근본적으로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분석적인 연구로는 오프레허티의 “Asceticism and Sexuality in the Mythology of Shiva”(1968), “The Origins of Heresy in Hindu Mythology”(1973) 그리고 힌두신화의 악의 개념에 관한 저서인 *The Origins of Evil in Hindu Mythology*(1976)가 있고 짐머(Zimmer)의 저서 *Myths and Symbols in Indian Art and Civilization* 등이 있다. 특정 주제에 국한된 텍스트 분석과 의미 중심의 작업을 해온 오프레허티의 연구는 힌두 신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해주기도 했지만 인도 학자들로부터 실제 인도신화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상상적 재구성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짐머 역시 전생애를 인도에 관한 저술을 쓰며 보냈지만 인도에 가본 적이 없어 그가 이해한 인도신화는 상상적으로 재구성된 측면이 있다. 이처럼 분석적인 몇몇 연구들도 제한된 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인도적 맥락에서 이해하거나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인도의 경우는 많은 종의 신화텍스트들이 출간되어 있다. 범어로 된 신화텍스트들의 다양한 본들이 여러 지방어와 힌디 그리고 영어로 번역 출판되어 있고 이 원본들의 축약본도 수를 세기 힘들 만큼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분석적인 저서들은 드물고 대부분은 몇몇 신화 텍스트의 신화들을 편집해 놓은 신화자료집이다. 일례로 S. M. Gupta의 *Indian mythology: myth and legend*(2002)는 『마하바라타』와 『뿌라나』에서 발췌한 신화들의 모음집으로 분석은 거의 없다. 특정체계나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저서도 일부 있기는 하다. 무코빠다이(Mukhopadhyay)의 *Indian mythology*(2007)는 힌두신화의 기본특성과 주요 신들 그리고 불교와 자이나교 신화에 대한

해설서라 할 수 있고 당게(Dange)의 *Towards Understanding Hindu Myth* (1996)나 아로라(Arora)의 *Motifs in Indian Mythology -Their Greek and Other Parallels*(1981)는 일부 분석적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인도신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주는 연구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책들은 인도 힌두신화 전반의 주요 특성과 구조 그리고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아쉬움을 해소시켜 준 책이 바로 빠판에이크의 *Indian Mythology*이다. 필자가 아는 한 인도신화를 일정한 틀을 가지고 체계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분석한 저서는 이 책이 거의 유일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인도신화를 인도문화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면서도 이를 신화학의 주요 주제와 연관 지어 다룬다는 점이다.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신화의 비교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화의 형태와 의미의 변화문제, 그리고 신화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석문제를 인도신화의 여러 사례들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인도문화의 맥락에서 인도신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찰과 함께 신화연구 일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2. Devdutt Pattanaik의 *Indian Mythology*가 다루는 주제와 논점들

이 책은 서문(Introduction: Constructing Hindu Myth), 신화연구(Mythology: Studying Myth), 신화비교(Mythopohere: Comparing Myths), 신화의 변형(Mythopoesis: Transforming Myth) 그리고 신화해석(Mythography: Interpreting Myth)을 다루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인도신화(힌두신화) 이해에 필요한 개념과 용어 그리

고 관점 등을 개괄하면서 힌두교와 힌두 신화를 서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서구 유일신 종교가 유일신, 일회적 삶,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과는 달리 다신과 우주와 삶의 순환을 믿는 힌두교에 신과 악마, 선과 악, 천국과 지옥과 같은 상호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힌두 신화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데바와 아수라의 투쟁이 흔히 신과 악마 또는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이해되고 분석되는 것에 대해 저자는 힌두 신화가 아수라를 데바와 형제지간이자 때론 데바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묘사하는 사실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p. 5). 따라서 저자는 힌두 신화에 대한 식민논리와 서구 성서적 선입견을 단절시키고 인도 힌두 신화의 신비를 그 자체의 맥락에서 조명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은 저자가 이 책을 서술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이다.

**1장은** 신화연구의 주요 주제인 신화와 신화학, 신화의 표현, 신화의 기능, 신화를 통한 극복 문제를 힌두 신화를 사례로 들어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신화제작의 이유를 인간이 자신들이 놓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과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신화를 ‘우주, 사회,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확립시키는 특별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한다(p.14). 그리고 다른 이야기 형태들과 달리 신화가 파워를 지니는 근거를 신화가 ‘근원적인 삶의 물음들에 대답을 제공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신화와 신화연구의 중요성을 신화가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삶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도전에 대응해 왔으며 삶에 있는 모순과 충돌을 어떻게 화해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찾고 있다.

또 이 장에서 저자는 힌두교와 힌두 신화에 대한 유럽학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편견문제를 제기하고 힌두 세계관의 핵심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저자는 신화의 기능을 무질서해 보이는 세계를 나름의 체계로 구조화시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세계관(패러다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리고 힌두 세계관을 순환적 우주관과 업과 다르마 사상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여기서 주목해야할 요점은 힌두 사상과 신화에서 우주와 자연의 순환은 인과율로서의 업 법칙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프로세스일 뿐 그 자체에 어떤 목적성이나 윤리성이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힌두 신화의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데바와 아수라의 투쟁은 반드시 선과 악의 투쟁은 아니다. 그렇다면 힌두 세계관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부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저자는 힌두사회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온 다르마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는 신화는 완전함을 그려낸다고 말한다. 이 완전함이 근동종교의 패러다임에서는 신의 율법을 지키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면 힌두 패러다임에서는 삶(생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런 행동을 확보하는 법칙이 다르마라는 것이다. 힌두 사회와 문화에서 이 다르마를 지키는 것이 선이고 다르마를 범하는 것이 죄와 악이 된다. 그러나 힌두 패러다임에서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완전함의 상징은 선과 악으로 대변되는 현상계의 이원성을 초월하여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해탈이다.

신화의 비교문제를 다루는 2장에서 저자는 힌두 신화의 주요주제들을 다른 문화권의 유사신화와 비교하면서 특정 신화체계의 용어를 다른 신화체계에 적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곡해와 편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다. 저자는 먼저 힌두교의 신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개념과 얼마나 다른가를 힌두 신 개념과 체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통해 잘 이해시킨다. 사실 힌두교의 신체계는 일신교적(또는 일원론적) 다신론이라 할 수 있고 바로 이 복합적 신체계가 힌두교의 신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저자는 힌두교에는 일신론, 다신론, 범신론, 교체신론, 무신론 등 매우 다양한 형이상학체계가 모두 존재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격성과 비인격성, 초월성과 내재성 모두를 지니는 힌두 궁극적 실재개념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또 힌두교의 선과 악 개념

이 근동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데바와 아수라 투쟁신화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한다. 그는 힌두 신화와 세계관에서 선과 악은 업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좋고 나쁜 행위의 결과일 뿐 본질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도사회에서 윤리는 절대적 관점이 아닌 상대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논의와 관련하여 저자는 아수라를 악마로 이해하게 된 것은 초기 유럽의 힌두신화 번역자들이 힌두 신들이 그리스 신들과 유사하고 아수라가 데바의 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아수라를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이나 북유럽신화의 거인들과 같은 demon으로 지칭하게 된 데 기인한다고 말한다(p. 79).

힌두교에도 천상과 지옥 개념은 존재한다. 그러나 힌두 사후관에서 이 관념은 단지 부차적이다. 저자는 사후세계와 관련된 신화분석을 통해 이 점에 대해 잘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힌두 생사관은 순환적 우주관에 근거한 윤회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다. 인도인들에게 사후의 운명은 두 가지 길로 갈린다. 사후 조상들의 땅(Pitri-loka)인 야마의 세계(Yama-loka)로 가서 재생을 기다리거나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천상(swarga-loka) 즉 신들의 세계로 가서 윤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저자는 지옥(나라까) 관념이 본래 힌두 신화에 없었으나 페르시아인, 무슬림, 기독교도들과의 접촉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자가 2장에서 마지막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여러 지역신화에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화소나 스토리에 대한 해석문제이다. 저자는 홍수신화를 예로 들어 두 가지 해석 즉 문화간 전파 또는 인간 무의식의 공통된 표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사성에 너무 치중해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기독교 성서의 홍수는 신의 분노의 결과이지만 힌두 홍수의 경우는 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우주의 순환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그래서 힌두 홍수신화의 패러다임은 근동지역 홍수신화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화의 유사성이 인간의 공통된 본성을 보여 주고 차이는 세계관과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신화연구는 신화의 보편적 측면과 문화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일 것이다. 저자 역시 같은 관점에서 신화를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커뮤니케이션이자 동시에 사회, 정치, 문화적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 역사적 산물로 규정한다(p. 115). 3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문화적 특수성과 관련되는 역사적 변천에 따른 신화의 변형문제이다. 저자는 이 주제를 인도종교(힌두교)의 변천과정(의례중심의 ritualism에서 사색과 명상을 중시하는 speculation 그리고 불교나 자이나교의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theism으로의 전환)에 따른 힌두 신화의 변형을 통해 다룬다.

3장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저자가 단순히 힌두 신화의 변형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힌두 신화와 힌두교의 특성을 규명하는 점이다. 저자는 힌두 신화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도 이전 전통을 단절하지 않고 변형적으로 수용하여 지속성을 유지해온 측면을 잘 보여준다. 저자는 ‘여러 세기에 걸쳐 힌두 이야기들은 변형되고 신화는 재해석되었고 의례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의 힌두 신화와 힌두교는 고대의 모습과는 아주 다르다. 그럼에도 고대의 찬가와 상징과 사상들이 지금도 낭송되고 사용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야기 자체는 사회, 문화적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의해 변형된다. 그러나 새로운 관념이 옛 관념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관념을 낳기 위해 동화된다.’고 말한다(pp. 157-159).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예로 인도의 대표적 서사시인 『라마야나』에 『베다』의 의례주의, 『베다』 이후의 금욕주의, 『우빠니샤드』의 사색주의, 고대 힌두교인 브라흐만교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박띠 철학이 모순이나 충돌 없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 중층적 통합성, 이질적인 것의 균형적 종합화, 배타적이지 않은 유연한 수용성, 정반합적 전개 등은 힌두 신화, 힌두교, 힌두문화 모두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4장에서 현대의 대표적인 신화이론을 힌두신화해석에 적용해 논의한다. 저자가 생각하는 신화해석은 신화가 전하고자 하는 ‘깊은 지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는 신화해석 관점을 두 부류, 즉 신화를 미발달된 심성의 산물로 역사, 알레고리, 유사과학으로 보는 관점과 신화제작을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거나 삶을 이해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하고 이를 4항목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먼저 **History and Prehistory**에서는 신화를 포장되거나 과장된 역사로 보는 관점을 그리스의 철학자 에우헤메로스(Euhemerus)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술하고 인도에서 역사와 신화의 관계를 논한다. 사실 인도의 경우 신화와 역사가 구분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인식되어왔다. 저자는 이 사실을 인도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신화집과 신화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힌두 신화가 역사의 성화 또는 신화화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역사-신화학파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한 예로 크리슈나신의 초기 삶(『하리밤사』)과 후기의 삶(『마하바라타』) 사이에 큰 갭이 있는 이유를 농경문화의 영웅과 도시의 영웅을 결합시킨 결과로, 비슈누의 화신으로 제시되는 것을 역사적 영웅의 신격화로 해석한다.

**Strategic Charters**에서는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이념을 확립 및 전파시키기 위해 신화가 전략적으로 제작되는 측면을 다룬다. 힌두 신화에서 이러한 측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주제는 힌두 종교-사회 규범인 다르마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바르나아슈라마 다르마와 여성의 다르마와 관련된 신화들이다. 바르나아슈라마 다르마는 인도사회가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로 각 카스트의 의무를 지키고 삶의 단계를 밟아 해탈을 추구하도록 규정한 규범이다. 저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신화 분석을 통해 힌두사회가 어떻게 신화를 통해 힌두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인도사회가 『라마야나』의 시파 이야기와 같이 여성정절을 강조하는 전략적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확립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형태의 전략적 이야기들이 사회 공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This in terms of That*에서는 신화를 알레고리로 볼 경우 신화는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매개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끝으로 *Metaphors of the Mind*에서는 신화가 인간 심성의 특정 측면을 표출하는 통로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저자는 현대서구의 대표적 신화분석이론인 프로이트, 융,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힌두 신화에 적용시켜 분석한다. 먼저 프로이트의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개념을 사용하여 인도신화를 분석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야기가 많은 그리스 신화와는 달리 인도신화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많은 점을 들어 오이디프스 콤플렉스가 문화적 현상일 뿐 보편적 현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융과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이론을 사용해 인도의 2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이야기를 분석한다. 특히 인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마야나』를, 신화가 하나의 구조를 지니며 이 구조는 자연과 문화 간의 충돌을 화해시키려는 특정 공동체의 필요와 관련된다고 보는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에서 자연(Adharma)과 문화(Dharma) 간의 투쟁을 어떻게 화해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화로 규정한다. 저자가 이렇게 여러 신화해석이론들을 적용시켜 힌두 신화의 해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신화가 지니는 힘을 파악하려면 신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신화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데 있다.

### 3. 마무리 글

빠판에이크의 *Hindu Mythology*는 형식면에서는 신화연구의 주요 주제

들을 논의대상으로 삼으면서 힌두 신화를 분석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저자의 본 의도는 신화연구의 일반적 범주 안에서 힌두 신화의 특성과 신화에 반영된 힌두 세계관의 핵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힌두신화와 힌두교의 핵심 내용을 정확한 용어와 개념으로 압축해 전달하는 저자의 탁월한 능력이다. 아쉬운 점은 사례로 제시하는 신화의 수가 많다보니 각 신화에 대한 분석이 짧은 점이다. 또 책의 구성이 신화연구의 주요 주제로 짜여 있고 그 주제 하에 힌두 신화가 사례로 제시되는 방식이어서 특정한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 인도신화를 다루고는 있지만 인도신화 자체를 연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인도적 맥락에서 인도신화의 주요 주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인도신화 전체를 구조적으로 조망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에 담긴 힌두 사상과 세계관에 대한 저자의 정확하고 깊은 이해와 명확한 설명은 필자가 지금까지 접한 힌두신화 관련 자료 중에 가장 탁월했다. 또한 인도신화가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화는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과 함께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다. 보편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화연구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화들을 지나치게 단순한 구조와 논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 문화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너무나 간단히 제거해버리는 느낌이다. 이 점은 필자가 신화를 연구하거나 강의해 오면서 안타깝게 느껴온 점이다. 신화가 다양성과 보편성 두 측면 모두에서 연구되어야한다는 전제하에 신화연구가 문화적 다양성보다 주목할 필요성과 신화가 문화이해의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